

홍명보호美 마이애미 전후 중간평가

“선수들 정상 컨디션 회복... ‘베스트 11’ 말할 때 아니다”



순발력·파워 향상 주력... “지나친 주전 경쟁은 훈련에 독” 팀 만들기 집중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의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5월31일~6월11일)이 반환점을 돌았다. 홍명보 감독은 5일(한국시간) 대표팀 숙소인 미국 플로리다주 어벤추라의 턴베리 아일 리조트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훈련이 잘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지훈련 초반 감기·부상 악재 ‘탈출’> 홍 감독은 훈련의 성과를 묻자 “지난달 초부터 선수들의 지구력에 기분이 되는 심폐기능 향상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 훈련을 토대로 점검한 결과, 선수 대부분의 심폐기능이 정상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튀니지 평가전 당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며 “지구력을 끌어올리는 훈련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민첩성과 파워 향

상을 위한 훈련은 마이애미에서 하기로 했고, 지금 상황에서 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지훈련 초반 일부 선수가 감기 기운으로 훈련에서 빠졌지만 하루 만에 회복한 것에 대해 “위기를 잘 넘겼다”고 위안을 삼았다. 홍 감독은 “기성용, 이범영, 이용, 이정용 등 감기 기운이 있던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며 “자칫 훈련 초반에 위기를 맞을 뻔했다. 선수 관리가 중요한 데 일찍 정상 상태로 돌아와 다행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수 교체와 부상 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경험상 월드컵은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김진수를 최종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자연스럽게 박주호가 합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주전 경쟁은 오히려 독”> 비주전

도 소중”=홍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을 빛낼 ‘베스트 11’ 구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지나친 경쟁의식은 자칫 훈련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어서다. 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주전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월드컵에서 주전을 맡는다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서는 경기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주전 선수의 희생이 없다면 주전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게 홍 감독의 지론이다. 대신 “베스트 11 선정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컨디션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라며 “나에게는 모든 선수가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또 월드컵 본선에서의 ‘돌발 변수’를 부상으로 꼽았다. 그는 “여러 일들이 생

길 수 있지만 선수가 다치는 게 가장 큰 돌발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친 선수 관리를 잘 하고 대체 요원도 대비해 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훈련상황에 만족”>=홍 감독은 마이애미 전지훈련이 끝나고 브라질로 넘어갈 때 대표팀의 상황을 색깔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을 받아 잠시 고민했다. 홍 감독은 “파주NFC에서 흰색으로 출발했다면 브라질에 도착할 때는 빨간색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분홍색 정도 온 것 같다”며 훈련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월드컵 첫 경기가 시작될 때에는 팀이 100% 완성돼야 한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는 쉽지 않지만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만큼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 16강

“간다” 1명 “못간다” 5명

美 CBS, 축구 전문가 6명 전망 소개

미국 CBS는 4일,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전망을 통해 H조의 한국의 16강에 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CBS는 축구 전문가 6명에게 각 조 조별리그 순위와 4강 결과, 득점왕에 대한 전망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이 속한 H조에서는 6명 전원이 벨기에가 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5명이 러시아, 남은 한 명은 한국이 조 2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 대해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이 조 3위에 머물 것으로 점쳤고 2위와 4위가 한 명씩이었다. 한국의 16강 진출을 예상한 CBS 스포츠의 제리 힌넨 기사는 “월드컵 본선에서 최근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CBS 스포츠는 “러시아의 노련하고 조직적인 수비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A조에서는 브라질이 6명 전원으로부터 조 1위로 예상됐고, 크로아티아와 멕시코가 조 2위 표를 3장씩 나눠 가졌다. ‘죽음의 조’로 꼽히는 D조에서는 6명의 전문가가 모두 우루과이, 이탈리아가 16강에 오를 것으로 전망해 잉글랜드 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 대표로 나가는 일본, 호주, 이란은 단 한 명의 전문가로부터도 16강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문가 5명이 브라질의 우승을 점쳤고 남은 한 명은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줬다. 득점왕 전망에서는 네이마르(브라질)가 3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2표를 얻었고 남은 한 표는 벨기에의 로베르 투루카루가 가져갔다. /연합뉴스

한국, FIFA 랭킹 57위... 2계단 하락 출전 32국 중 호주 이어 두번째 낮아

한국이 2014 브라질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6월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2계단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5일 FIFA가 발표한 2014년 6월 랭킹에서 랭킹포인트 547 점을 얻어 57위에 그쳤다. 지난달 랭킹은 55위였다.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을 H조 상대국 가운데서는 벨기에가 가장 높은 1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19위로 한 계단 하락한 러시아는 H조에서 두 번째로 랭킹이 높았다. 알제리는 전체 22위를 기록, 지난달보다 무려 3계단이나 상승했다. 코트디부아르를 제치고 아프리카 1위에 올랐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만 놓고 보면 이란이 43위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46위), 한국, 우즈베키스탄(59위) 순이었다. 62위인 호주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한국은 바로 위인 31등이다. 스페인과 독일이 전체 랭킹에서 여전히 1, 2위를 지켰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제치고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지난 4일(한국시간) 전지훈련지인 미국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진행된 미니게임 훈련에서 황석호 등을 피해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프레지던츠컵 골프 인천 개최... 최경주, 수석 부단장 선임



완도 출신 ‘코리아인 탱크’ 최경주(44·SK텔레콤)가 2015년 인천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세계연합팀(유럽 제외) 수석 부단장에 선임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5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리지데일에서 2015년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미국 대표팀과 세계연합팀 단장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이 하스(미국)가 미국 대표팀, 닉 프라이스(짐바브웨)는 세계연합팀 단장에 각각 선임됐고, 최경주는 세계연합팀 수석 부단장(Vice Captain)에 뽑혔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 대표팀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연합팀의 골프 대항전이다. 라이더컵과 함께 세계적인 대륙 간 대항 경기인 이 대회는 1994년 창설됐으며 12명씩으로 구성된 미

국과 세계연합 대표팀이 나흘간 포섬과 포볼, 싱글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다. 전 세계 160개 나라 5억 명 이상이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회의 명예 대회장은 개최국의 행정 수반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 대회가 비영어권 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2015년 한국 대회가 처음이다. 한국은 2011년 11월에 이 대회를 유치했으며, 2015년 10월8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이 개최 장소로 정해졌다. /연합뉴스